

특별기고

고양특레시에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자

민선8기 시작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이 공식 출범하며 새로운 고양으로의 첫걸음을 떼었다. 최종 목표인 기업친화적인 경제특레시 안착까지는 준비할 일이 많다.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제적 과제는 무엇일까.

글. 안충영
-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 前 외국인투자증부즈만
- 前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국내 경제성장 견인하는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이하 FEZ)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으로 정의된다. FEZ 지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현재 전국에서 총 9개 지역이 FEZ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고양특레시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구상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고 성공적 운영을 하려면 각종 기반인프라의 하드웨어와 기업하기 좋은 제도에 초점을 둔 소프트웨어를 갖추어야 한다. 예컨대 공항 및 항만 물류시설, 광역교통 및 정보통신망, 전력, 공업용수 등을 공공재원으로 건설하고, 조세감면, 현금지원,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의 인센티브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규제철폐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제1호 FEZ는 2003년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송도지구는 비즈니스, IT·BT 기능, 영종지구는 물류, 관광 기능, 청라지구는 금융, 레저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서울에 인접하고 인천국제공항에도 근접하여 국제기구와 FDI 유치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우리나라의 광역경제권들은 경쟁적으로 FEZ를 지정받았다. 그러나 인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FEZ들은 국제기구 유치나 국제금융 등 국제도시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고 FDI 유치 실적도 저조하여 산업단지의 확충과 지방균형 개발이념에 머무르고 있다.

개발은 규제개혁부터

고도기술 FDI를 위하여 국가 전체를 경제특별구역으로 개방한 네덜란드, 싱가포르 모델에 이어 FDI를 활성화시킨 두바이, 아일랜드, 중국의 해남성 등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허브 국가들은 국가적 명운을 걸고 1970년대 중반부터 전 국토를 자유화하고 관민의 협력체제 아래 FEZ를 추진하였다. 정부도 앞으로 네덜란드와 싱가포르처럼 기업하기 좋은, 사실상 전국이 경제자유구역화 되어가는 비즈니스 허브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하여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고양특레시도 FEZ 열차를 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왜 많은 나라들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려 하는가? FDI 호스트 국가는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경제발전엔 필요한 자본과 새로운 기술 및 지식확산(Knowledge spillover) 및 새로운 경영 기법을 전수 받고 국제적 공급사슬망에도 합류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호스트국가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 내수시장, 자원확보, 저렴한 노동력, 현지 기업과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의 확대 등을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 FEZ는 다국적 기업의 목표와 호스트 국가의 이익이 일치되어야 하는 상호 윈윈(Win-Win)의 틀에서만 가능하다.

경기북부 최초 경제자유구역 기대

고양특레시는 현행 법령 아래 FEZ 요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체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그리고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요인에 대한 SWOT 분석을 하고, 약점과 위협요인은 극복하고 강점과 기회는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를 흡입할 수 있는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을 적극 배양해야 한다. 통근 거리에 고급식·기능 인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고양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을 쌓아 가야 한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의 대도시로 올해 초 특레시로 지정되었다. 또한 서울,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도시로서 우리나라 최대 상설 전시와 컨벤션을 개최할 수 있는 킨텍스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 CJ그룹이 약 32만㎡ 부지에 우리나라 최대 한

류 공연장을 건설하고 있다. 그리고 약 87만㎡에 이르는 테크노밸리 조성에 이어 10만㎡에 이르는 산업단지 후보지가 있어 산업과 서비스 기업의 클러스터링을 추진할 수 있다. 바로 옆 선별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상호 보완하여 기존 FEZ와는 차별화된 FEZ를 추진할 수 있다. 마침 경기도가 인구와 발전격차 등을 감안해 경기북도 분할 개념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접 자유구역청과의 중복기능도 고양특레시는 극복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반도체 등 혁신기술 투자와 역량 강화는 이제 다다익선이 되고 있다. 2020년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는 지역산업 육성전략에 맞춰 FEZ 확대와 효율화를 위한 지자체의 자율권 강화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였다. 그리고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과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도 건의한 바 있다. FEZ 지정을 위한 요건들 가운데 고양특레시는 상당한 항목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 고양특레시가 선택과 집중으로 기술혁신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동환 고양특레시장이 취임 후 제1호 공식문서인 '경제자유구역 추진단 구성 계획'을 결재하고 있다.